

나혜석, ‘날뎀’의 시학

이덕화

국문초록

1920, 30년대 신지식인의 등장은 역사적 당위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봉건체제의 중심계층은 나라를 빼앗기게 한 담당계층으로 더 이상의 지도력을 발휘 할 수 없었고 자본주의의 중심계층이 떠오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광수, 최남선, 등, 또 여성으로는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 등의 신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은 중차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정치적 꿈을 실현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근대화의 꿈을 펼치게 된다. 그들은 주로 글쓰기를 통하여 유교전통의 모순을 비판하고, 새로운 근대의 틀을 마련하려는 욕망을 보여준다. 그 중 하나가 전통결혼 제도를 비판하고 자유연애를 주창하게 된다.

이광수와 모윤숙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유연애론은 아직 근대 계몽주의에 기초를 둔 이분법적 가치체계에 의해서 정신과 영혼, 지배와 피지배, 남성과 여성 등 모든 것을 지배와 억압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나혜석을 비롯한 신여성들의 의식은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개성으로 외화되는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혜석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자유연애론은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부르짖는 몸의 정치학이다. 즉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이다. 감각적 글쓰기는 고백적 글쓰기로 나타난다. 고백적 글쓰기는 폐쇄된 사회에서 소통체계를 찾을 수 없을 때 드러나는 최종의 선택방법이다.

나혜석은 고백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고, 개성적 주체로서의 인간임을 확인하려고 했다.

나혜석은 남성들은 허위의식을 가차없이 내던지고 철저히 자신의 '날뎀'으로 각인되는 흔적에 의해 포착하려고 했다. 사회는 폐쇄된 남성중심사회였고, 나혜석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1. 신지식인의 등장배경

부르디외에 의하면 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와 평등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기제라는 것이다.¹⁾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이란 각 사회계급에 일치하는 사고와 행동 및 성향의 체계, 즉 아비투스²⁾를 재생산하여 계층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영속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교육제도란 중상류층의 자녀가 일류대학이나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졸업과 동시에 좋은 직장을 얻는 현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1910, 20년대부터 시작된 신교육군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일합방과 함께 양반중심의 봉건체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사회적 체제, 서구적근대화의 이념 습득을 위한 체제, 신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 양성되었다. 신교육기관들은 한국인 스스로가 세운 사립학교도 많았으며 선교사들이 세운 사립여학교들도 많았다. 사립학교의 설립에 열성인 사람은 양반출신이 아니라 평민출신이 많았고, 또 피교육자 역시 평민출신들이 많았다.³⁾ 교육의 내용은 주로 서양의 새로운 학문과 사상으로 역사, 지리, 정치학, 법학, 산술, 대수 등이었다.

그러나 전문교육자를 양성하는 전문학교나 대학교는 1910년 경에는 국내

1) 현택수편, 『문화와 권력』(나남출판, 1999), p.9.

2) 부르디외가 제시하는 아비투스란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획득된 성향,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의 체계를 의미한다.

3) 이기백, 『韓國史新論』(일조각, 1986), p.392.

에는 거의 없었고, 1910년 이후부터 전문 교육을 위해 일본 유학이 정부주도로 시작되었고, 1920년대 이후에는 자비 유학도 상당히 많았다. 즉 1920년대 이후에는 유학생이 고학생 등 계층이 다양화되었다. 이 때에도 유학을 통한 교육의 기회는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욕구와 상응했고, 그들의 기대지평은 사회의 욕구와 일치되었다.

반면 일본이 세운 관립학교가 있었지만, 주로 양반자녀들이 다녔고, 이들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또 총독부 중심의 정부기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사립학교는 민족운동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토론회, 웅변회, 운동회 등을 활발하게 개최, 지식인이나 일반인들의 관심의 집중이 되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관심은 언론이나 문화활동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의 정책 역시 1919년 3·1절 이후 무장운동에서 문화운동으로 위장, 식민지 지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신문이나 잡지를 중심으로 한 신지식인군이 새로운 계층으로 부상되기 시작했다. 신지식인군은 대부분이 유학경험을 가졌고, 지주계층의 자녀들과 평민층이 섞여 있었다. 이광수나 최남선 역시 이 신지식인군에 속했고, 신여성 역시 부상된 새로운 계층에 속했다. 지식인 계층의 부상은 혼란기의 새로운 이념의 전달자로서, 민족적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떠맡지 않을 수 없었다.⁴⁾

이들 신지식인군은 과거 양반이라는 생득적 지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자생적 계층이었다. 그들은 물질적 기반에 의해서 흔들리는 계층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회의 변혁을 감당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곧 과거의 낡고 부적절한 가치와 전통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폐쇄된 정치적 꿈을 글쓰기 자체를 통해

4) 봉건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 체제에서, 신지식인군이 그 지도적 위치를 점유할 수밖에 없었다. 봉건체제의 중심계층인 양반계층은 나라를 빼앗기게 한 담당계층으로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했고, 아직 자본주의의 중심계층은 떠오르지 않는 시기였다.

실현해내려고 했었다.⁵⁾ 그들이 이루어 낼 수 없는 꿈은 약속으로서의 근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⁶⁾ 즉 그들은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대보다는 당위적인 관점에서의 근대를 논할 수밖에 없었다. 또 그들은 정치적인 관점에서나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근대보다는 일상생활의 변혁, 전통결혼에 대한 비판으로 자유연애를 논하게 된다.

신지식인군 등장배경은 봉건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 체제에서 그 지도적 위치를 점유할 수밖에 없었다. 봉건체제의 중심계층인 양반계층은 나라를 빼앗기게 한 담당계층으로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했고 아직 자본주의의 중심계층은 떠오르지 않은 시점이었다. 신지식인군의 등장은 역사적 당위성을 획득하고 있었고, 그 전세대의 구한말의 위정자들은 비판의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다. 자유연애가 주창되면서 도매급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봉건체제에서의 구식여성들은 깊숙한 속으로 숨어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봉건 결혼제도 희생자에서 다시 봉건결혼의 당사자로 역사적 무시간 속으로 사라져야 했다. 신지식인군이 빼앗긴 국가로부터 아비 잃은 체험은 과거를 모두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아버지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새로운 아비, 근대는 이성계몽주의의 이항대립 논리 속에서 신구대립, 지배자와 피지배자, 여자와 남자, **한쪽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지식인군은 자유연애의 파트너로서는 신여성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지배자의 위치에서는 피지배자로 즉 타자로 인식한다. 신여성 역시 자유연애의 파트너로서 여성도 인간임을 부르짖으면서, 구식여성도 인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타자로서 인식한다. 이는 구식여성들의 소외된 삶에 대해서나 구식여성들의 의식개혁에 대해서 언급한 신여성들의 어떠한 글도 찾아볼 수 없는 데서 알 수 있다. 얼마나 신지식인군이 계층간의 불평등을 조장해 왔는

5) 그 당시의 모든 정치적 담론이나 교육적 담론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6) 리타 펠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거름, 1998), p.230.

애정 없는 부부는 일종의 상행위요, 고용관계이다. 매음이요, 간음이외다. 이러한 부부의 婦된 자는 그 육체의 노력과 생산으로 夫된 자의 사육을 받는 자요, 婦된자는 의(衣)와 식(食)과 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장기의 첩과 노비와 생산을 겸한 여자를 사는 것이외다.⁷⁾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과거의 가치체계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집안과 집안간의 합의에 의한 결혼은 야합이고, 매음이라고까지 매도한다. 유교적 전통이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조장해서, 국가나 가정의 질서를 한 개인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종적인 지배체제를 유지시킨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집안과 집안간의 결혼이 비록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야합이나 매음은 아닌 것이다. 세심한 개인적 정서가 발달되지 않았던 유교적 전통 속에서는 집안과 집안간의 결혼이 주는 미덕 또한 무시할 수는 없었다.⁸⁾ 그럼에도 무조건적 전통에 대한 무시는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 단절이라는 역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농업생산이 기초인 이조 봉건사회에서는 결혼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었다. 이 시대의 성은 결혼과 출산의 기초였고, 노동력과 신분세습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즉 광범위한 친족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생산과 상류 계층의 신분세습을 위한 혈족보존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였다. 종족보존과 신분세습을 위한 혈통의 순수성이 강조되고, 이는 자연적으로 여성의 정절로 이어졌다. 여성의 정절 강요는 인간을 감정과 욕망을 가진 인간으로보다는 그 당대의 유교의 이념이나 가족제도의 도구화, 사물화시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은 새로운 계급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전자본주의 단계의 성은 종족에 대한 봉사, 혹은 헌신이었다. 개

7) 이광수, 「신생활론」, 『매일신보』(1919. 9. 6~10. 9).

8) 근대적 개체화된 개인적 정서는 1920년대 후반 소설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기영의 『고향』이나 김남천의 『대하』 등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연애에 대한 개인적 정서는 양반보다는 소작인들의 연애, 혹은 기생과의 연애에서만 드러난다.

인의 욕망이나 쾌락과는 상관없이 중매혼을 통하여 신분이나 노동력이 재 생산되었다. 종족으로부터 분리된 성, 개인적인 연애의 감정이 등장된 것은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런 과정이다. 개인의 열정이나 사랑의 감정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정서의 한 부분이다. 집단에서의 분리는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서 작용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물질적 전개과정을 통하여 혈족 중심의 집단가족은 핵가족으로 분리됨에 따라 결혼과 성은 개인적 행복을 위한 척도가 되었다. 또 사고 체계가 공동체, 국가 혹은 종족의 예측된 집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에 비해 근대사회는 개인적 욕망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근대사회는 물질적 기초가 농업생산에서 공장제 생산으로 변화됨에 따라 노동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는 공동체에서의 이탈을 의미했고, 가부장적 호주로부터의 독립을 가능하게 했다. 물질적 기초가 확보된 젊은 남녀들은 종족보존이라든가, 신분제 상속과는 다른 자기네들만의 보금자리를 위해 낭만적 사랑, 자유연애를 꿈꾸기 시작했다.⁹⁾

결혼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애정은 근대화된 개체와 개체간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시대적 사회조건 속에서 그 시대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형성되기 마련이다. 과거의 부부의 결합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이광수가 어릴 때 고아가 된 사실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구속 받을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가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의 본부인을 내치기 위해서는 전통을 소리높여 비판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전통적 가족제도에 의해서 희생자가 된 본부인들은 역사밖으로 쫓겨나야 하는 것이다. 그녀들은 살아 있지만, 역사밖에서 신음해야 하는 것이다.

이광수는 우애혼은 육적결혼, 연애에 의한 결혼은 영적결혼으로 이원화

9) 줄고, 「신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한·중·일 국제심포지움 발표문(2000. 7. 5), 한국여성문학학회 개최.

할 뿐만 아니라, 근대의 미라고 할 수 있는 개성의 미를 정신적 미, 즉 영혼의 미로서, 외형적 미와 분리해서 논한다. 내적인 정신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개성이다, 남녀의 정서적 만남, 정신적 결합 후의 다음 단계가 육적 결합이 아니다.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애정이 깊어지면, 자연적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연애의 단계이다. 이광수의 영과 육의 분리, 개성에 대한 몰이해는 그 당시 근대론자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계속해서 이광수의 혼인론을 보자.

余는 皮女權論者와 如히 男女의 平權理論上으로나, 實際上으로 正堂한지 否한 지를 判斷할 能力이 枯無하거니와, 但 民族發達上 又は 家庭改良上 어떤 程度까지는 女子의 人格을 確定함이 有利할 줄 思하며, 더욱이 朝鮮과 如히 家庭에 在하여 女子를 舍혀 肉慾滿足과 子女生産의 기계로 確定하는 社會에 在하여는 多少間 女子의 人格을 絶對함이 正堂할 줄 信하노니, 故로 余는 理論上으로 此를 主張함이 아니요 利害打算上 女子의 權利를 主張함이로다.¹⁰⁾

전통결혼을 부정하던 자세와는 전혀 다른 소극적인 자세로 여자의 인격을 한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족발달상 가정개량상〈어느정도까지는〉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남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여자의 인격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인격은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시키고, 남편을 도와 가정을 원만히 꾸려가는 현모양처로서의 인격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사회화하고, 남자와 동등한 인격자로서 대등한 관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밀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이는 남성적 환상의 편견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성성을 정확하게 재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광수의 자유연애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핵가족화되어 감에 따라 분화

10) 이광수, 「혼인론」, 『매일신보』(1917. 11. 21~30).

될 수 밖에 없는 일부일처제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연애논리이다. 산업화와 함께 남성들의 공적인 영역과 여성들의 사적인 영역이 분화될 수 밖에 없는 현모양처론의 이론적 바탕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념론자 이광수의 영과 육의 분리에 의한 이원론적 사고구조나 남성적 보조의 관계 하에서만 여성의 인격을 인정하겠다는 남성우월주의 의식은 철저한 경험과 감각을 바탕으로 한 나혜석의 명쾌한 논리에 의해서 가차없이 깨어진다.

2. 나혜석과 자유연애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귀속되는 심리적 우월성은 논리적 우월성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그와 함께 남성적 가치는 초개인적 타당성을 획득한다. 결국 여성적인 것은 우선적인 남성적인 것과 관계 속에서만 규정되기 때문에 여성의 자율성은 표현될 수 없다. 여성은 실제로 남성의 경험에서 파생된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가정되는 규범에 포섭되거나, 타자로 표상된다. 두 경우 모두 여성은 보편적인 가치를 가장한 남성적 규범에 의해 판단된다. 따라서 여성이 스스로 그리고 자신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입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¹¹⁾

나혜석은 그 당대의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한 인간으로서, 한 가정의 부인으로서 총체적인 인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혜석은 곧잘 '내 생활이 걸작이 되고 싶어요'¹²⁾라는 말로서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선각자로서의 철저한 자각 의식 속에서 종합적인 인간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나혜석은 그 시대적 한계, 남성적 규범에 의해 타자로서 그 사회에서 매몰될 수 밖에 없었다.

이광수가 일본의 유학생들의 중심이 된 잡지 『학지광』을 발판으로 활동

11) 리타 펠스키, 위의 책, p.82.

12) 나혜석, 「파리의 여자」, 『삼천리』(1935. 11).

이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혜석 역시 『학지광』의 중심멤버는 아니었지만, 첫 번째 애인 최승구가 이 잡지에서 열심히 활동하였고, 이광수와도 가까운 문우로서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나혜석은 여성이라는 생래적 특징에 의해서 이들의 이론을 많이 극복하지만, 역시 그 시대의 지적인 그룹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한다.

나혜석은 이광수와는 다르게 연애를 서로의 개성의 발현으로 영과 육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이광수가 자유연애를 영적인 개성의 결합으로 인정하면서 육적인 결합을 분리해서 논하는데는 그 당대의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연애는 ‘기생들이나 하는 짓거리’에 대한 무의식적인 비판의식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광수의 자유연애론은 모운숙을 비롯한 근대론자들에게 연애를 정신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러나 나혜석은 모운숙의 이런 논리에 반발한다.

한 상대를 영원히 戀愛할 수 있는 때 우리의 思想은 時마다 緊張되고 날카로워져서 자아완성에 갇카이 갈 수 있으나 한번 그와 結婚하매 그 心靈의 발전은 결혼과 함께 終結되기 쉬운 까닭이다. 自己 靈魂의 內室을 직혀주는 美의 對象이 있다 하자 그리고 항상 그 對象의 幻形으로 因하여 높은 理想에 달할수있다면 절대로 그와의 結婚을 실현하지 않는 것이 有利하지 않을가 한다 혹시 결혼을 想像은 할 지언정 內的 결합에까지 달치 않음이 가할 듯 하다.¹³⁾

毛允淑兄 참 아름다운 戀愛觀이외다 神秘의 나라를 노래하는 詩人の 戀愛觀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말을 쓸 수 없나이다. 實노 꿈나라에서 노는 少女의 戀愛觀이 올시다. 사람을 戀愛하난거시 아니라 戀愛를 戀愛하는거시 하나이다. 兄은 靈을 卑劣이 生覺하나 靈과 靈이 부딪칠 때 尊敬, 利害 同情이 영킬 때 피는 지글지글

13) 모운숙, 「나의 戀愛觀」. 여기서는 나혜석의 「靈이나, 肉이나, 靈肉이야」(『정월 나혜석 전집』, 국학자료원, 2001)에 인용된 글을 재인용한다. p.374.

끌코 자릿자릿 뛰여 꼬집어 뜻고도 십고 무려 뜻고도 십고 어루만지고도 십고 투덕투덕 푸드리고도 십혀 不知不覺 中 打算없이 靈肉이 一致되는 것시오 何暇에 靈肉을 따로 生覺하릿가. 일시 잠시인들 었지 떠러져 사오리가 결혼하여 한 집에서 살나는 것은 사람의 慾心이오 本能이외다. 었지 마음으로 사랑하고 결혼까지는 이르지 았을 것입니까. 苦惱와 思索 그것이 永久한 명상 속에서만 異性의 사랑을 要求하는 것이 아니외다. 오히려 煩惱가 될지언정 肉的 실현이 아니고난 高尚한 理想이 될 수 없나이다.¹⁴⁾

위의 모운숙과 나혜석의 글이 상반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두 사람의 일생도 상반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모운숙은 아다시피, 문학적 모든 명예를 다 차지했을 뿐만아니라, 정치적인 영예도 함께 누린 인물이다, 반면 나혜석은 현실적으로는 몰락의 길을 걸었던 서로 상반된 인물들이다. 모운숙은 여자이면서도 가부장적 의식을 내면화한 인물로 남성과 마찬가지로의 인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모운숙은 자유연애를 논하되 사회적 도덕적 지탄을 받지 았을 연애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모운숙은 魂과 魂의 結合만은 不道德한 제제를 맞지 았을 줄 안다' 靈적인 연애는 어떠한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사회적, 도덕적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이광수와 똑같은 이항대립적인 가치체계를 보여준다. 나혜석의 말처럼, 소녀적 취미라든가, 종교적 취미가 아니라면, 인간은 靈肉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사랑도 결국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靈의인 사랑과 肉의인 사랑을 나누어서 논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모운숙과 나혜석과의 차이는 대상을 생각하는 차이에도 있다. 모운숙은 사랑하는 대상을 존경에 가까운 畏敬에 가까운 상대를 두고 연애를

14) 나혜석, 위의 글, pp.374~375.

논하고 있는 반면에 나혜석은 연애의 대상을 대등한 위치에서 생각하는 차이 때문에도 문제가 있다. 나혜석의 말대로 **모운숙**은 소녀적 감정이나, 종교적 외경심에서 연애를 논하고 있다.

나혜석 사고의 밑바탕에는 **審美적 사고**, 즉 삶의 감동에 언제나 중심이 놓여져 있다. 연애관에도 대상에 대한 생각이 육체적 감각을 통해 나타났을 때 그 기쁨 즉 쾌락은 몇배로 배가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사고는 육체적 감각을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 사그러질 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더 깊은 감동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감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 세계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광수나 모운숙 등의 근대론자들은 자연과 인간을 유기론적 체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항 대립적인 가치체계 속에서 자연 즉 **감각까지도** 정복과 억압의 대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혜석은 어디까지나 육체적 감각은 사상이 매개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기체적 세계관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광**』에 실린 나혜석의 「**이상적 부인**」을 보자.

연하나 우리는 차 장소(場所)의 범사를 취득하여 日日이 수양된 자기의 양심으로 築出한 바 最히 이상에 근접한 **新想像**으로 生長치 아니하면 아니 되겠도다. 습관에 의하여 도덕상부인, 즉 자기의 세속적 分本만 完遂함을 이상이라 말할 수 없도다. 一步를 更進하여 차 以上の 준비가 없으면 아니될 줄로 생각하는 바요, 單히 賢母良妻라 하여 이상을 정함도 **必取할** 바가 아니가 하노라. 다만 차를 주장하는 자는 현재 교육가의 商賣의 一好策이 아닌가 하노라.

남자는 夫요, 父라. 良夫賢父의 교육법은 아직도 듣지 못하였으니, 다만, 여자에 한하여 부속물된 교육주의라. 정신수양상으로 言하더라도 실로 재미없는 말이다. 또 부인의 溫良柔順으로만 이상이라 함도 **必取할** 바가 아닌가 하노니, 云하면 여자를 노에 만들기 위하여 此 주의로 부덕의 장려가 필요하였도다. (중략)

일정한 목적으로 有意義하게 자기 개성을 발휘코자 하는 자각을 가진 부인으

로서 현대를 이해한 사상, 지식상 및 品性에 대하여, 그 시대의 선각자가 되어 실력과 권력으로, 사교 또는 신비상 內的 광명의 이상적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 볼가한 줄로 생각하는 바라.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가 良夫賢父를 제일의 이상으로 삼지 않으면서 왜 여자는 賢母良妻를 제일의 이상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남자의 부속물화하는, 노예 만들기, 남자들이 바라는 이상적 여자일 뿐이지 여자들이 이상으로 여기는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근대사상을 받아들여 자신의 개성을 바탕으로 남자와 동등하게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여자가 바로 이상적 부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제일은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요, 두 번째 남자들이 良夫賢夫가 부수적이듯이 여자들의 현모양처 역시 이상적인 삶의 목표라기 보다, 결혼한 여자에게 따르는 부수적인 것이지 이상은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런 나혜석의 진보적인 의식은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직관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위의 글은 나혜석이 최초로《학지광》에 발표한 글로서 일본 유학 2년차에 쓴 글이다. 그 당시로는 아직 자신의 주체적인 여성관을 가지기는 짧은 유학기간이었음에도 뚜렷한 주체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글이다. 나혜석의 자유연애관은 철저히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연애를 전제로 한다. 즉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울 수 있다면 연애 역시 언제나 가능하다는 내면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광수와 모운숙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유연애론은 아직 근대 계몽주의에 기초를 둔 이분법적 가치체계에 의해서 정신과 영혼, 지배와 피지배, 남성과 여성 등 모든 것을 지배와 억압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나혜석을 비롯한 신여성들의 의식은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개성으로 외화되는 일원론적인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연애론도 지배와 억압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고유한 인격체를 가진 대등한 인간으로 진실한 관계맺기 '알뎀'으로 받아들여려고 했다.

3. '날뫼'¹⁵⁾의 시학

초창기 신여성문학을 주도했던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은 1910년대 후반 기 이광수와 그의 동시기에 문학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이었다. 김명순의 「의심의 소녀」가 『청춘』지 11호(1917년 11월)에, 나혜석의 「경희」가 1918년 3월 『여자계』2호에 발표됨으로써, 이광수의 『無情』(매일신문 연재, 1917년)과 거의 동시기의 작품으로 꼽힐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이광수, 최남선을 중심으로 한 계몽적 합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계몽이성이 근대성의 이념으로 대치되고 있다.

계몽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보편적 이성 이론은 일부 주체집단의 경험을 인류의 전형적인 사례로 파악함으로써 '은밀하게' 규정된 보편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¹⁶⁾ 주체집단이란 권력을 가진, 혹은 재산을 가진, 그 사회집단을 이끌어 가는 정치지도자, 부자, 전문지식인 등등의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계몽적 보편 이상이란 그렇다면 차이와 개인의 구체적 실존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보편적 이상이다, 그러한 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보편적 이성이론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¹⁷⁾

초기 신여성문학이나 그녀들의 삶에서 나타난 혼란스런 모습들은 바로 남성들과 여성들의 생래적인 기질에 의해서 빚어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명순이나 김일엽, 나혜석은 그녀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신념이 바로 그들의 실제 삶이었다, 그들은 온몸으로 그들의 신념을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녀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합일,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 너와

15) 여기서 '날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나혜석의 글쓰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의식이 자신의 체험을 통한 '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고, 실제 삶에 있어서도 관계 속에서의 전략을 피우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몸으로 부딪히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에서도 그렇다. 그러기 때문에 신선하면서도 설익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의미의 '날뫼'을 의미한다.

16) 미셸 푸코,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새물결, 1995), p.77.

17) 즐고, 위의 글, p.17.

나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 속에서 나타난 몸의 정치학이 바로 그들의 문학이었고, 그들의 실제 삶이었다. 그들의 문학은 실제 삶을 떠나서 생각할 수도 없고, 실제 삶을 떠나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성의 몸은 이성과 감성, 정신과 육체, 너와 나의 만남을 실현해 내는 곳이다.

나혜석은 이광수 등의 보편주의적 계몽의식에서 벗어나 철저히 자신의 사랑의 철학을 주체적으로 확립하였다. 또 나혜석은 세 여성 중에서도 특히 경험과 감각 즉 실재를 중시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毋된 感想記」를 한번 보자.

이 글은 가부장적 의식을 가진 남성 독자가 위장한 주부로 변장한 백결선생이라는 자에 의해서 미성숙한 인간으로 비판을 받은 글이지만, 나혜석은 이글에서 감각적 체험에 의해서 어떻게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구체적 실재적 경험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즉 당위적인 차원에서 어머니로서의 모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재적 경험을 통해서 모성을 느끼게 된다는 경험을 쓴 글이다.

이 글에서 나혜석은 모성에 관한 시간적인 체험을 나열한다. 자식에 대한 모성은 처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쌓이는 정을 통하여 모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세상 어머니면 누구나 자식이면 무조건 사랑한다는 맹목적인 모성을 반박한다. 나면서 내아이니까 사랑이 샘솟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이는 동안 사랑스러움이 쌓여서 그것이 모성이 된다는 것이다. 흔히 세상사람들이 말하는 '샘솟는 정' 이라면 왜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딸이기 때문에 덜 사랑스럽다냐며 의문을 던지며 그 논리의 내면에는 그들의 이항대립적인 가치체계가 숨어있다는 것을 간파한다. 그것은정이 넘쳐나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절대적 효를 요구하는 부모들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자신들의 노후를 자식들을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공리적인 목적 때문이라 지적한다.

나혜석의 글은 철저히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이다. 오직 육체만이 진실을 말할 뿐이다. 우리의 의식은 잘못된 허위의식으로 길

들여져 있다. 모성은 처음부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샘솟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감각을 통해서만이 얘기될 수 있는 것이다. 허위의식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타인까지도 허위의식으로 치장해 끝없이 타자화시킨다. 나혜석의 임신에 대한 불안은 그 당시 폐쇄된 사회에서 오는 불안감이다. 구식 여성들은 물론 신여성들이라도 결혼만 하면, 또 아기만 낳으면 인간적인 삶은 커녕, 개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사회에서 자신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꿈은 끝이다라는 절망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이다. 그러나 아기를 낳고 잠에 부족함 나혜석의 꿈은 오직 한시간의 잠이라도 폭 잘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와 같이 나혜석의 의식은 감각을 통해 끊임없이 흐른다. 고정불변하지 않다. 모든 체험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의식이 흐르도록 그대로 관조할 뿐이다. 이런 감각을 바탕으로 한 의식에는 내 안에 끝없이 타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내 몸은 의식을 받아들이는 거울이 된다. 나혜석은 자신의 몸을 통하여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바로 자신의 사상과 영적인 깊이를 더 풍부히 하는 사람, 즉 진보한 자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나혜석에게 진리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언제나 자신의 감각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이 點으로 보아 進歩해가는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떠러진 물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떠러진 誘惑의 길이 깊으면 깊고질수록 더 深刻한 더 複雜한 現實을 엿보는 故로 이 意味로 보아 이러한 사람은 迷惑에 處하면 處할수록 外觀은 비록 苦痛스러운 지언정 内幕은 豊富한 감정으로 살 수 잇난 거시다. 그리고 世上 凡事로 肯定해 버리고 만다.¹⁸⁾

나혜석의 인생은 실험적 인생이다. 폐쇄된 사회에 온몸을 던져 자신이 인간이 되려는 노력을 한 것이다. 나혜석에게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개

18) 라혜석, 「신생활에 들면서」, 위의 책, p.80.

성을 끝까지 발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개성의 발현은 자신 속에 있는 수많은 자아들을 개발하고 발견해내는 자기발견의 길이다. 나혜석은 자신은 모든 체험을 통해서 종합적인 인간으로서 폐쇄된 사회에 소금이 되고자 했다. 그러니까 나혜석은 자신을 잊지 않으므로 거기에서 최고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고, 무한한 체험으로 감각 속에 각인하려 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며 타자를 받아들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혜석은 정조까지도 하나의 예술적 정조를 행동화하기 위한 취미라고 한다. 육체적 외형이 비록 구속을 받더라도 마음만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마음에 예술적 정취를 깨닫고 행동이 예술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저 바리와 같이 貞操가 紊亂한 곳에도 貞操를 固守하는 男子 女子가 있나니 그들은 이것 저것 다 맛보고 난 다음에 다시 뒤걸음 치는 거시다. 우리도 이것 저것 다 맛보아가지고 固定해지는 것이 危險性이 없고, 順序가 아니가 한다.

흐르는 물결을 한 편으로 흐르게 하면 기어이 他方面으로 흐트러지고 만다. 점고 激烈한 그 가는 길에서 틀러가는 것이다. 이것은 自然이니 自然을 누구의 힘에 막으랴.¹⁹⁾

나혜석은 지금까지 허위의식은 믿지 못하고 철저한 감각적 인식, '이것 저것 다 맛보아가지고,' 무엇이 옳은 진리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감각은 하나의 자연이니,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지 무슨 사회적 잣대가 필요한 것이냐는 것이다. 이것은 껌안음의 미학이다. 껌안음의 미학은 남녀 교합을 통해 생명적 에너지가 분출된다. 즉 내 몸뚱이가 그 형체없음으로 흘러 확장되어 너와 만나니 거기에는 너와 나의 분리가 없다는 것이다.²⁰⁾ 통합만이 있다는 것이다. 나혜석은 감각적 생활을 통하여 생명이 붙어있는 것 같은

19) 나혜석, 위의 글, p.83.

20) 이리가레이, 위의 책, p.327.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움직이는 자신을 느끼는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다. 어떤 고통이나 오욕(汚辱)도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으면 그것은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 경험의 결정이 몸속에 행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나혜석이 몸이 마음을 따라 주지 못했고, 나혜석의 감각적 인식을 받아들이기에는 그 사회가 너무나 폐쇄되어 있었다. 나혜석의 빠리에서의 최린과의 사건으로 일어난 이혼 사건은 그 사회의 폐쇄성과 남성들의 이항대립적인 이중윤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나혜석의 남편 김우영은 그 당시의 남성으로는 파격적이라 할만큼 진보적인 면을 보인 인물이었다. 결혼 신혼 여행 중 나혜석의 전 애인 최승구의 무덤에 가서 절을 하고 비석까지 세웠다는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인물이다. 결혼을 승낙하면서 한 나혜석의 요구, 시어머니와, 전처에게서 난 딸들을 별거하게 해달라라는 요구까지 응했다는 것도 가부장적 의식이 지배적이었던 사회에서 자신의 입장보다는 나혜석의 입장을 더 고려한 문제해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또 해외 여행의 경비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여행에 나혜석을 대동한 것도 자신의 경제적인 입장보다는 나혜석의 화가로서의 파리 유학을 자신도 지원하고 싶은 생각으로 함께 대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다녀 온 후의 나혜석 부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²¹⁾

나혜석에 대한 배려가 그토록 깊은 인물이 최린과의 사건에서는 그렇게 나혜석의 참회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잔인할 정도로 등을 돌릴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단적으로 최린과의 연애사건은 김우영과 나혜

21) 나혜석의 다음 글에서 단적으로 김우영의 나혜석에 대한 배려가 나타난다.

「善良한 남편」 적어도 당신과 나 사이에 過去 生活 軌路에 나타나는 姿勢가 아니
오닛가

「善良한 남편」 事件 以來 얼마나 否定하려 하였스나 結局 그러한 姿勢가 只今 傷
處를 받은

내 가슴속에 蘇生하는 靑邱氏입니다. 라혜석, 「離婚 告白書」, 위의 책, pp.446~447.

석만의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고, 전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나혜석이 귀국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최린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왜곡 전파되어 김우영에게 보고 되었다. 김우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나혜석의 편지는 김우영의 감정을 격발시켰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감정적 틈을 이용한 주위사람들의 이간질, 주위 친우들, 부모, 형제, 친척,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녀사냥으로 인해 결국 파국에 이르는 것이다.

또 최린의 파렴치한 행위를 들 수 있다. 즉 나혜석의 편지에 대해 소문을 낸 사람은 바로 최린이었다. 이 사건으로 미루어보아 이미 최린은 나혜석과의 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키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유도했던 아니든 자신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그 이후의 파렴치한 사건으로 보면 단지 나혜석과의 빠리에서 연애사건은 진실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우영 역시, 나혜석이 스스로가 인격을 통합치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한 마당에 그 이후 나혜석을 사회적으로 매도한 점에서 나혜석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러워진다.²²⁾ 이런 김우영이나 최린을 비롯한 남성들의 이중적 행동은 결국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시키고, 그 이후 우리 나라의 여성들의 정체성에 현모양처에 초점이 놓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성으로서의 자기 직함보다 누구의 부인이 더 많은 현실적 힘을 가지는 폐쇄된 사회가 아직도 계속 되지 않는가.

남성이라는 신은 자신의 영역 안에 또 다른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대적인 힘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여성들을 죽음

22) 나혜석의 위자료의 요청했을 때 냉정히 거절했다든가, 아이들을 찾아갔을 때의 매정한 행위, 그것은 나혜석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혜석이 살아있었지만, 죽었던 인간처럼 타자화시켰던 것이다. 또 친정 가족이나 친구들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혜석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인간이 되고 싶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면, 나혜석은 행려병자로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나혜석은 최린과의 연애 사건이후 인간의 자격을 상실한, 돌팔매질 당한 버려진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다.

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나혜석은 감히 남성들이 자신들에게만 허용된 자신들만의 신성한 영역(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언제든지 허용된 자유연애)에 여성의 저주받을 몸으로 도전한 벌로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김동인이 그토록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의 자유연애를 거품을 물고 저주했던 「김연실전」은 가장 극명한 예다. 여성들은 가면을 쓴 남성들을 아무런 가면없이 ‘날뎀’으로 사랑했으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가면이 벗어짐과 동시에 그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들의 가부장적 의식이 내면화된 그 당대의 많은 구식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나혜석을 비롯한 신여성의 마녀 사냥에 일조했던 것이다. ‘날뎀’은 상처받기 쉬운 것이다. 나혜석은 결국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폐쇄된 사회에서의 자기 확립

염상섭의 처녀작 「표본실의 청개고리」는, 지적인 통로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 영역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제 시대 하의 **암울한 상황**, 지식인의 심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1920년대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일본의 시마자키도손(島崎藤村)의 『破戒』²³⁾의 주인공의 심리적 고백과 비슷한 지식인의 심리적 고민을 고백적 글쓰기라는 형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두 작품에서의 똑같은 심리적 **상황**은 객관적 현실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본실의 청개고리」의 초점화자가 1919년 3·1기념 독립만세 사건 이후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암담한 상황**

23)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破戒』는 1904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우시마즈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 교사로 봉직하다, 지방 소도시의 완강한 보수성에 부딪힌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계율의 파계 과정의 심리적 과정을 고백을 통해서 보여준다. 자각된 개인이 사회적 편견에 부단히 도전하는 모습을 통하여 근대적 자아를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실험용 칼(메스) 아래 버둥거리고 있는 실험 직전의 청개구리에 비유할 정도인 것처럼, 『파계』의 상황 역시 명치 이후의 근대화 바람이 부는 일본 사회에서도 신분제에 대한 봉건성은 여전히 폐쇄적임을 지식인의 심리적 고백을 통해서 보여준다.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이 다 똑같이 고백 형식을 빌어 글쓰기를 하는 데는 그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함량미달의 글쓰기를 한 것이 아니라 1920년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특징이 그들로 하여금 고백적 글쓰기로 몰아갔다고 할 수 있다.²⁴⁾ 최혜실은 1920년대 여성의 고백체 소설은 남성의 이항대립의 논리로 서서히 타자화되어가는 여성, 어린이, 피식민자, 가난한자 등 수많은 타자들이 양산되어 왔고, 이들은 근대의 모순들을 극복할 잠재력으로 전복적 특성들을 서서히 키워가기 시작했고, 고백적 글쓰기는 그런 점에서 전복적 잠재력을 지닌다고 했다.²⁵⁾

고백적 글쓰기는 상대방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최종의 선택방법이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자신에 대해 고백하듯이 나오는 글쓰기가 바로 고백적 글쓰기이다. 또 타인과의 관계회복이다. 이 때의 타인과의 관계회복은 절망상태에 빠진 타자로서의 자신 추스르기이다. 자신의 존재의식을 회복하고, 자기 삶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자신의 삶의 고통과 절망을 다 드러내 보인 후의 삶의 비극적 절망과 고향을 함께 체험하는 방식이다. 나혜석의 「이혼고백서」는 이혼 4년 후에 쓰여진 글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 글은 또 나혜석이 김우영과 만난 전 과정이 서술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 글을 통해서 나혜석은 자신의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고백을 통하여 자신을 죽임으로써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 것이다. 이 글은 그 당대에서는 충격적이라 할만한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다. 두 번에

24) 최혜실, 「1920년대의 사랑과 고백」,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생각의 나무, 2000), p.131.

25) 최혜실, 위의 글, p.263.

걸쳐서 발표한 글로, 두사람 사이의 역학관계, 가족의 역학관계, 우리나라 사람들의 왜곡된 민족성, 결혼까지의 내력, 화가로서 가정주부로서 자신의 가정생활, 최린과의 관계, 이혼 후의 상황전개, 지금까지의 자신의 **향방**, 모성애에 대한 자신의 소견, 이혼 후의 금욕생활, 이혼 후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인생관 피력 등으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부터 미래에 대한 자신의 행위까지 총체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다.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통해 자신과 대상과의 대립을 해소하고 삶의 총체성을 회복하고자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신과 김우영과의 대립은 해소되지만, 그것은 사회전체의 폐쇄성으로 혐의가 넘어간다. 자신의 불륜으로 인한 인격적 **통합**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김우영에게 일단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혼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화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폐쇄성, 비열함으로 결국 자신이 파멸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글을 통해서 나혜석은 지금 현재의 **욕망**으로부터 과거를 재해석하며, 다시 과거를 체험하는 것이다. 현재 자기의 **욕망**과 현실의 괴리에서 과거를 다시 재점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이별을 정리한다. 이 글은 관계의 위기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재정립을 시도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고백하기 전의 무력감, **비참함**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맛보기 위한 글이다.

光明과 暗黒을 다 일은 나는 이 空虛한 自失 狀態에서 停止하고 서서 한번 더 仔細히 耐性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합니다. 이와 갖치 念頭한안이 만치 나는 悲痛한 覺悟의 압해 서 있습니다. 世上의 모든 嘲笑, 叱責을 甘受하면서 이 十字架를 등지고 默默히 나아가라 하나이다. 光明인지 暗黒인지 모르는 忍從과 絕對의 苦悶밧헤 흐르는 조용한 生命의 속삭임을 드르면서 한번 더 甦生으로 向하여 行進을 繼續할 決心이외다.²⁶⁾

26) 라혜석, 「이혼고백서」, 위의 책, p.448.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의사소통체계를 잃은 자의 최후의 고백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스스로의 자아탐색을 통하여 자기 존재를 다시 확인받고자하는 소망이 담겨있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과거의 삶을 다시 재점검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은 자의 욕망이 드러난다.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고향을 체험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적 힘을 소생하게 하고 싶은 욕망이 드러난다. 그것은 「이혼고백서」를 발표하고 바로 이어서 최린의 정조유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드러난다. 나혜석은 그 이후 「이혼고백서」를 쓰기전까지의 죄인의 심리에서 벗어나, 폐쇄된 사회를 향해, 김우영, 최린을 위시한 그 당시의 모든 남성들, 혹은 남성의식이 내면화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했던 방식으로 고발의 형식을 취한다. 살아 남기 위해서, 혹은 죽기 위해서 그 당대의 삶의 양식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가짜 신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나혜석은 「이혼고백서」로 인해 소생했지만, 신을 고발한 죄로 현실적으로는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다. 가부장적 폐쇄된 사회에서 사적인 성적인 문제를 사회화 했기 때문이다.

나혜석의 「이혼고백서」를 통한 삶의 고향은 최린의 고소사건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배척당함으로써 다시 흔들리게 된다. 「이혼고백서」의 글쓰기가 상당히 논리 정연하게 이성적인 글쓰기를 한 것에 비해 그 다음해에 발표한 「신생활에 들면서」는 삶을 포기한자의 체념이 드러난다. 「이혼고백서」에서는 사회적 관계와의 긴장이 드러나지만, 「신생활에 들면서」는 일방적인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의한 나르시시적인 자기 열애에 빠진 자의 고백을 보여준다.

“나는 실혀, 내 過去와 現在와 未來를 다알고 있는 朝鮮이 실혀, 朝鮮 사람이 실혀.”²⁷⁾

27) 라혜석, 「新生活에 들면서」, 위의 책, p.479.

動機는 如何한 거시든지 훨씬 열어제킨 世界는 異常히도 조았고 더구나 無拘束하고 嚴肅하게 직혀 잇는 마음에 엇지 自由스러운 感情을 가지지 안케 되겠는가.²⁸⁾

그러케 快活하고 明朗하든 내가 소곰에 폭 저린 사람이 되고 마렸다. 일이 빠지고 어릿어릿하고 氣運이 업고 彈力이 업다.²⁹⁾

「이혼고백서」에서 보여준 삶의 의지는 「신생활에 들면서」에서는 삶을 포기한자의 자포자기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혼고백서」에서 보여주지 않는 감각적 글쓰기를 통해 ‘날뫼’ 으로서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진정성과 마주하고 있다. 그것이 윤리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사회의 통제와 규율을 벗어난 자의 고백이지만, 인간의 삶이 과연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는가하는 하는 새삼스럼 질문을 하게 한다.

두 글이 고백적 글쓰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대상과의 의사소통체계의 단절이다. 그것은 폐쇄된 사회에서 더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 고백이다. 오직 기댈 곳은 자신뿐이라는 절망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자신을 회복하고자하는 소망적 글쓰기이다.

세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 확립이다.

그렇다면, 나혜석의 「이혼고백서」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목표로 했다면 「신생활에 들면서」에서는 개성적 주체로서의 인간에 즉 근대적 자아에 목표를 두고 있다.

28) 라혜석, 위의 글, p.480.

29) 위의 글, p.485.

5. 살아있는 나혜석

나혜석은 친정 오빠네의 호적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아직 생존해 있다. 이것은 많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안숙원은 나혜석의 소설 「경희」를 분석하면서 나혜석은 「경희」에서 제시한 긍정적 신여성은 현재 존재하는 여성이 아니라 마땅히 존재해야 할 여성이며, 「경희」의 내포작가는 당위론적 세계관을 가졌다고 했다.³⁰⁾

나혜석의 글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의 양식은 고도화된 근대 사회에서의 삶의 양식이다. 그러기에 현재보다는 미래의 삶에 더 가깝다. 나혜석의 비극은 여기에 있었다. 나혜석이 여성의 삶에 관한 다양한 언급은 현존하는 현실로서의 근대가 아니라 미래의 당위성에 초점을 놓여 있는 것이 많다. 그 당시 유학생의 수나 신여성의 수는 숫적으로 미미한 숫자였다. 또 조선의 산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취업란이 전 사회적 문제가 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나혜석이 주장하는 개성의 발현으로 자신의 역량을 사회에 뿌리내리기에는 폐쇄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³¹⁾ 약속으로서의 근대는 구체화되지 않았고, 나혜석은 너무 멀리 미래를 향해 내닫고 있었다. 이것은 나혜석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혜석에 있어서 진리는 하나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남성들의 허위의식을 가차없이 내던지고 철저히 자신의 날뎀의 각인되는 흔적에 의지해 포착하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치부까지 폭로하기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은 어둠 속에서도 진리를 포착하려고 한다. 이혼 후의 참혹한 심경 속에서도 목마름은 그치지 않는다. 끊임없는 글쓰기의 행진을 보라. 그

30) 안숙원, 「나혜석 소설 「경희」의 재검토」, 나혜석 바로알기 제1회 국제심포지움 발표문, 나혜석 기념사업회.

31) 나혜석이 활동한 1920, 30년대 소설 속에서 취업란의 어려움을 그린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 「빈처」, 최 서해의 「탈출기」 등에서 나타내고, 가난의 문제를 다룬 김유정의 소설들, 전영택의 「화수분」 등에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어둠 속에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낯설은 감각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본다. 자신에게서 한사람 두사람 등을 돌리는 인간군들을 향해 삶의 허위성을 읽는다.

여성의 직감적 사고력, 날뎀의 시각으로 보여준, 고정불변의 진리로서가 아니라 감각의 포착을 통하여 흐름의 미학을 보여준 나혜석은 당대의 남성들의 이항대립적인 논리를 상당히 많이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당대의 지적인 그룹, 신지식인군의 한계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신여성의 이항대립적인 타자로서의 신여성이 아닌 구식여성, 또 다른 근로여성을 타자로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혜석은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 있다. 진리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진리의 목마른 자를 위해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다.

■ 필자 : 평택대 교수

Abstract

Poetics of Nalmom(naked and vulnerable body)

Lee Duk-hwa

The emergence of New-intelligentsia had its own historical reason of being in 1920s and 1930s. The central groups of feudalism had no more power and leadership, regarded as those who let their country lost. And therefore, the social role of those new-intelligentsias, such as Lee Kwang-Soo, Choi Nam-Son and females like Kim Myung-Sun, Nah Hye-Suk, and Kim Il-Yup was a remarkable one at the point of which there had been no rise of central leaders of capitalism.

They began to dream of modernization in a boundary which they could not make their political dream come true. They show the desires to criticize contradiction of Confucian traditions and prepare the new frame of modernism through their writings. One of those criticizes the traditional marriage system and insists of free love marriage.

Thoughts of love marriage shown by Lee Kwang-Soo and Mo Yoon-Suk, is based on the theory of knowledge that interprets everything in relationship of control and suppression like mind and soul, male and female. And that is by the value system in dichotomy based on modern enlightenment move. Otherwise, thoughts of female intelligentsias as Nah Hye-Suk is based on the theory of knowledge that comes out of uniqueness integrated, not divided as body and soul.

The free-love theory revealed by Nah's writings is politics of body that claims human as an alive thing. That is to look at the world through sense. Sensical writings comes out as confessional writings.

Confessional writing is the last choice that is made when there could be found no communication in a closed society. Nah tried to find a breakthrough of new life by confessional writing and confirm that she was a independent, individual human.

She tried to throw out the affectation of males' society and concentrate on the trace made by her plain body. The society was closed and male-oriented, and there was no other way than Nah hurt herself.